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담

경봉 스님(1)

경봉, 조주 스님이 신발을 머리에 이고 문 밖으로 나간 뜻이 무엇입니까? 한암, 부처와 조사가 손을 꽂고 돌아간 곳이다

1931년 가을, 55세의 한암(漢岩, 1876~1951) 스님이 극락암 위에 있는 비로암을 찾아오니 40세의 경봉(鏡峰, 1892~1982) 스님은 한암 스님을 모시고 차를 마시며 '남전참모(南泉斬猫: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베다) 공안으로 문답을 나누었다.

먼저, 경봉 스님이 한암 스님에게 물었다. "조주 스님이 신발을 머리에 이고 문 밖으로 나간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와 조사가 손을 꽂고 돌아간 곳이다."

"만약 형님이 그 당시 남전이 고양이를 칼로 벨 때 있었으면 무어라고 답을 하였겠습니까?" "남전이 본래 고양이를 벨 사실이 없었다."

"누가 그런 말을 전합니까?" "남전참모 공안으로 선문담 나뉜 한암 스님과는 사촌 사형제 관계

이 없으니 전한 말이 없노라."

"이제 들었습니까?" "이제 들은 것도 없노라."

"이제 들은 없다고 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말이 많은 법을 회문함이라."

"형이 오히려 법을 회문함에 걸려 있습니까?" "한암 스님이 잠시 침묵한 뒤, 물었다. "조주 스님이 신을 이고 나간 의지(義旨)가 무엇인가?"

"가로 누우니 발이 하늘을 가리킵니다."

"요즘 어떻게 공부해 지어가고 있습니까?"

"한 티끌이 눈에 들어간 허벅지 어지러이 떨어진다."

"한 티끌이 눈에 들어간 허벅지 어지러이 떨어지는 의지가 무엇인가?"

"형께선 내일 아침에 맛있는 차를 마십시오."

한암 스님이 묵묵히 있었다.

한암 스님은 경봉 스님의 은사 성해 화상의 사제(師弟)인 석담(石潭) 스님에게 법을 받았으므로, 사촌 사형제 관계가 되었다. 이런 친근함이 있어서 먼저, 경봉 스님은 한암 스님에게 편지로 문답을 나누는 교류가 깊었다. 한암은 오대산, 경봉은 영축산에 머물러 직접 법거랑을 나눌 기회가 적었기에, 경봉 스님이 <삼소굴 입지>에 기록한 위의 선문담은 매우 귀중한 기록이다. '남전참모' 공안의 유래는 이러하다.

어느 날 남전 스님이 동당과 서당의 승방 승려들이 고양이를 한 마리를 놓고 시비하는 것을 보고는 고양이를 잡아 쳐들

고 말했다.

"일러라. 맞으면 베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남전 스님은 고양이를 베어 두 동강이를 내버렸다. 뒤에 남전 스님이 이 사실을 제자인 조주 스님에게 말하니, 조주는 신발을 벗어서 머리에 이고 나가버렸다. 그러자 남전 스님이 말했다.

"그때 만일 그대가 있었더라면 고양이를 살렸을 것을!"

경봉 스님은 훗날 제자들에게 남전이 말한 "그때 만일 그대가 있었더라면 고양이를 살렸을 것을!"이란 말보다, 조주가 짚신을 머리에 이고 나간 것이 훨씬 더 무서운 뜻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곤 했다. '남전참모' 화두를 든 수행자들은 두 도인의 법문담을 참구하며, 각자의 공부단계를 점검해 보자.

김성우 객원기자



“육근 관찰 통해 자신의 마음을 보라”

현호 스님 명상기공 강좌



“영상을 보고 관찰하세요. 볼 볼 소리 들으시고 그 마음을 듣고, 들으 들음 들음을 관찰하세요. 몸의 현상, 느낌, 의도, 생각을 관찰하세요.”

11월 21일 마포문화원 강의를 한 현호 스님(예전 정회사 해명선원장)이 10명의 수행자에게 놓고 바르게 서서 코끝을 통해 석자 앞을 내려 보고 조용히 걸으면서 육근(六根: 안·이·비·설·신·의근)을 관찰하는 경행(經行, 行禪)을 시범해 지도한다. 경행은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순간을 알아차리므로 순간순간의 집중력을 길러준다.

간화선과 위빠사나를 두루 닦은 현호 스님은 선(禪)의 관심법(觀心法)이 사념처와 육근을 관찰하는 위빠사나와 틀이 아니라 고 본다. 그래서 수행상의 옳이나 방법 역시 별개로 보지 않고 '법안명상(法眼明想)'이란 체계에 수행자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보고 마음을 관찰하라'고 말한다.

“영상과 소리, 냄새, 맛, 느낌, 의도, 생각을 관찰하세요. 꿈속에서도 무의식을 관찰하세요. 자나 깨나 일체처 일체시에 순간순간 관찰하세요. 성성적지(惺惺寂寂)하게 깨어있는 알아차림으로 마음을 집중하여 조화롭게 관찰하세요.”

무술 사범 출신의 현호 스님은 1976년 부산 시내에서 우연히 <금강경> 독경을 듣고 발심해 참선에 매진, '11면(面) 관음보살의 어느 얼굴이 본래 얼굴인가?'라는 화두를 타파해 수덕사 및 화계사 조실을 지낸 덕산 선사의 전법제자가 되었다. 이후 국내 고승을 두루 참방한 스님은 간화선과 근본불교의 장·단점을 살펴보기 위해 미얀마로 만행을 떠났다. 미얀마에서 육근을 관찰하는 위빠사나(禪)의 화광반조(佛光返照)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체험한 스님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위빠사나선원 원장을 역임했다. 이어 1995년 미얀마 찬미아에 예티라 수도원에서 우기인거를 하면서 회두 타파 이후 새로운 수행체계를 한 스님은 당시, “망상을 쉬고 보니 모두가 헛된 꿈이라 아무것도 결말 게 없네. 몸도 마음도 텅 비었으니 어디에 번뇌가 일까. 고요하고 고요하여 자연 그대로 일세” 라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수행법의 대중화를 발원한 스님은 1994년



현호 스님의 지도로 참선 실수실수(우)와 경행을 배우는 불자들이.

부터 10년간 불교방송문화센터에서 명상을 가르쳤으며, 3년 전부터는 마포문화원에서 명상기공을 지도하고 있다. 예전 정회사 해명선원 선원장을 맡아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스님은 <달마를 보라> <고향 찾은 나그네> <마음의 창> 등 14권의 명상시집과 수행서를 펴내기도 했다. 다음은 현호 스님의 1분담.

—법안명상은 어떤 수행법입니까. 심신을 맑고 밝고 고요하며 평안한 조화의 상태로 인도하는 수행법이다. 부처님 당시의 근본 가르침과 옹수보살 이후 대승의 행법과 밀교의 행법, 조사선의 수행법을 회통하여 여섯 가지 수행문을 열어놓고 하나로 연결시켜 삼위일체 회삼귀일(三歸一)의 원리로 '반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의

도리를 실천수행을 통해 증득하고 증생을 교화하는 대중적인 생활명상이다.

—여섯 가지 수행문은 어떤 것인가. 수행법은 여섯 가지로 근기에 맞게 수식관, 염불관, 진언관, 실상관, 화두관, 삼매관

을 가르친다. 기본적으로 좌선, 일상생활 관찰과 경행, 그리고 티베트기공, 의가(醫家) 기공, 무가(武家)기공의 행법과 도인(道引) 기공 등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행법은 조도(助道)의 방편일 뿐이다.

—육근 관찰과 관심법이 틀이 아닌 까닭은. “마음은 빛깔도 소리도 모양도 형태도 없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작용할 때에 나타

난다.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

고, 머리로 생각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고 마음을 보는 것을 관심(觀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육근 관찰이다. 눈·귀·코·혀·몸·뜻이 작용할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순간적인 깨어 있음으로 알아차려서 육근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 현상이 사라질 때까지 마음속으로 명칭을 붙여 관찰해야 한다. 그것이 지름길이다. 그리고 현상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관찰해야 사라지는 순간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구체적인 수행 단계를 설명한다면. 수행이란 신·해·행·증이러, 먼저 믿음이 생겨야 발심이 되고 교리나 선리의 바른 이해를 통해 육근 관찰을 실천할 때에 정도(正道)의 수행이 된다. 그리고 깨달음의 증득을 위해 안거 및 유행을 하며 경행, 좌선, 기공, 육근 관찰 등의 수행을 실천한다.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면 믿음-발심-심-지견-견처-견성-돈오-점수-확철대오-돈오돈수(正覺, 12地, 佛)가 되는 것이다. 수련순서는 먼저 육근 관찰을 하면서 삼매를 하고 기공-좌선-경행-면담-삼매의 순서로 수련하되 육근 관찰을 하면서 해야 한다. 꿈속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행이나 좌선 중에도 육근 관찰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八正道)를 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보는 것이며 깨달음의 지름길이다.

—무엇이 본래면목입니까? 본래면목 찾아보니 본래면목이 없어 없다

는 것조차 없으니, 무엇을 일러 본래면목이라 할 것인가. 면구함에 걸려서 고개 속이나 실상(實相)이 무상(無相)이라. 진공(眞空)의 바다에서 묘유(妙有)를 일으켜 일체처에 노니나 가히 실이면관음이야.

—어떻게 해탈해야 합니까? 인연을 벗어나 망상을 쉬고, 집착을 벗어나 번뇌를 쉬니, 진공에 들어 진인(眞人)이 된다. 공해탈, 심해탈, 해해탈, 공도 벗어나고 마음도 벗어나고 지혜도 벗어나 모두 다 벗어나자. 돈오돈수(頓悟頓修)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을 이루어 해탈의 '탈'도 벗어버리자. 예전 정회사 (054)653-3536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daum.net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인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본래는 언제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믿고 싶을 때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tarcenter.co.kr. E-mail: heegun@avata21.com

수행계시판. ●위빠사나 주말수행-천안 호두마을은 12월 7~9일, 14~19일, 21~23일, 12월 28일~1월 2일 사사나 스님의 지도로 위빠사나 주말수행을 실시한다. (041)667-2841. ●일승(一乘) 법문과 문답-현정선원은 매주 일요일 오후 2~3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대우 가사의 참선문과 문답 시간을 갖는다. (02)682-9371. ●삼천배 정진=아비라카페(cafe.daum.net/abira)는 12월 15~16일 해안사 백련암에서 삼천배 정진을 실시한다. 삼천배를 마친 사람은 불명을 받을 수 있다. (010)3325-8588. ●좌선인 동인거 참선서를 보람선원은 직장인을 위해 동인거(11.24~2.21) 기간 동안 매일 저녁 7~9시 백련 21층 가사의 법문을 듣고 좌선하는 참선법회를 연다. (017)332-4096

“신수비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편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행화. 방한용털신, 발,마춤형 제작, 방한용부츠, 조각무명, 사계절단화, 특 무 명, 지압갈창. ●가격: 60,000원. ●규격: 215-290mm. ●색상: 회색, 검정. ●가격: 120,000원. ●규격: 220-250mm. ●색상: 회색, 검정. ●가격: 120,000원. ●규격: 215-290mm. ●색상: 회색, 검정. ●가격: 80,000원. ●규격: 215-290mm. ●색상: 회색, 검정. ●가격: 10,000원.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주지민).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부산: 원광사 051636-7019, 대구: 연꽃세상 053426-7300, 전주: 상운각 063274-6639, 광주: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산신복 062228-2870, 서울: 부산신복 02738-8407, 대전: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신복 042254-8772, 제주: 김윤경신복 064724-7999, 충북(충주) 원정사 불교점 0431-846-9091, 경북(예천) 뫄타불교점 054655-2525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지붕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훈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철(대응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로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 칼라지붕 공사